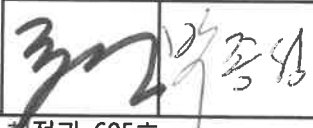


2019학년도 제 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개최일시	2019년 3월 29일 오전 10시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김영선, 박소진, 박종성, 이정규, 김화경, 황지수, 김주영	기록자(간사)	권외숙	기록일	2019. 3. 29	
		불참의원	김택동, 이재진, 김명림, 강영숙, 신석하			
		기타참석자	권외숙, 차용진, 오현준, 송일근, 강소영			
안건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특수대학원 학칙 개정(안),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2)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안) 심의 3)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의견 수렴					
배포자료 및 기타	1. 2019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부의안건 자료 2. 2019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의견수렴 사항 관련자료					
■ 심의(자문) 사항 1. 의장은 총 의원 12명 중 7명이 참석하여 2019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 2. 의장은 첫 번째 안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대학원교학팀 오현준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그리고 다음 사항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다. 의장과 의원들은 대학원 학칙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다. ①대학원학칙 제3조 2항의 단서조항은 ‘학과간협동과정 참여학과’로 문구를 통일시키기로 한다. ②대학원학칙 제4조 1항의 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한다. ③대학원학칙 제11조 4항은 ‘원격수업’으로 일치시키기로 한다. ④대학원학칙 제12조 3항은 ‘각 연계교과목은’으로 문맥을 수정하도록 한다. ⑤대학원학칙 제20조 5항과 6항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하다. 7항은 개정하되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대학원교학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석사과정 전환 시작 시기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한다. ⑥대학원학칙 54조 1항의 ‘회의는 인터넷 이메일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삭제하기로 한다. 2항 2호의 긴급한 사유의 주체를 대학원으로 명확하게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3. 의장은 특수대학원 학칙 설명을 특수대학원교학팀 송일근 팀장에게 요청하다. 의장은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건을 통과시키다. 4. 의장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설명을 경영전문대학원교학팀 강소영대리에게 요청하다. 의장과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다. ①경영전문대학원 학칙 17조 ‘원격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문구 수정한다. ②경영전문대학원 학칙 25조 ‘공통과목 36학점 및 전공과목 3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3학점)과 사례연구(3학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문구 수정한다. ③부칙 제3조(적용례)는 삭제한다. ④[별표1]에 대한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중 2016학년도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을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으로 문구 수정한다. ⑤경영전문대학원 학칙 [별표1], [별표2]의 학년도 구분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531은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통일하여 수정한다. 5. 기획팀 권외숙팀장이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장은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건을 통과시키다.						

2019학년도 제 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 심의(자문) 사항

6. 의장은 두 번째 안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안) 심의를 상정하다. 기획처장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설명하다.
 - ①의원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발전계획의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학과단 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공유이다. 구성원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총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수립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과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우리대학 특성에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③의장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잘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하다. 발전계획서의 평가지표를 전략적으로 성과지표가 달성하기 쉬운 지표로만 이루어진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나 이러한 지표 달성을 통해 우리대학의 발전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를 표하다.
 - ④발전계획이 발전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정을 투입하고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
 - ⑤기획팀장은 본 중장기 발전계획(안)은 밀어붙이기 식, 탑다운(Top down)방식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세부 실천방안을 채워나가겠다는 것이 본부의 의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다. 본 중장기 발전계획(안)은 2021년 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한 발전계획이다. 4월 달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비전콘서트라는 방식으로 5월에 선포할 예정이다.
 - ⑥김영선 의원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대표나 경영자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 근로자가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전계획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방식의 충분한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⑦황지수 의원은 총학생회 간담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질문하다. 학부 총학생회 뿐 아니라 대학원 총학생회도 대상에 포함하여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의장은 위와 같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시키다.

7. 의장은 세 번째 안전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평의위원회 의견 수렴을 진행하다.

- ①기획처장은 사립학교법 53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총장의 재단임명권 조항이 유일하며, 후보선출 등 세부적인 절차는 규정화 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하다.
 - ②의장은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총장의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TF를 조직하여 제도에 대한 검토,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의위원회는 심의, 자문하는 조직이지 어떠한 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기구는 아니다.
- 추가적으로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다.
- ③김화경 의원은 총장선출제도 개선이 현재 총장의 공약 사항이므로 총장님의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주무 부서를 정하여 TF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하여 총장선출 규정을 제정(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19대에서 합의체를 구성해서 공약공청회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 ④이정규 의원은 대부분 사립대학의 총장선출 제도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 77%가 일방적인 재단의 임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단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우리 대학의 총장선출은 직선제이다. 다만 직선제가 후보자공약도 없는 가운데 전체교수회의에서 선출된 후보들의 5분간의 발표 후 선거를 진행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위원장

결
재

■ 심의(자문) 사항

- ⑤의장은 총장선출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총장후보선출규정에 근거하여 총장후보를 선출해 왔기 때문에 비록 현 규정이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면 교수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규정에 대한 개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 ⑥이정규 의원은 우리대학의 재단의 특성과 한계로 이사회는 총장선출제도 개선 권한을 총장에게 일임하였음을 이야기 하다.
- ⑦김영선 의원은 우리대학 재단의 특성과 한계를 다 알고 있고, 총장이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끌고 나가야 하고 총장이 위원장을 지정하셔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⑧황지수 의원은 TF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각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행정본부에서나 이사회에서 TF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수, 학생, 직원, 동문까지 각 주체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그 결과를 평의회나 대학 본부로 전달하면 된다. 총학생회에서는 각 주체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교수협의회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사회나 대학본부에서 끌여가는 형태 보다는 평의회는 각 주체들에게 연합체 구성에 협조하라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⑨이정규 의원은 대학본부나 공식 기구가 추진하지 않으면 교수님들의 참여 확보가 어렵고 규정화 시점에서 이견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 개진하다. 기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다. 1학기에는 규정이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6월말까지가 적당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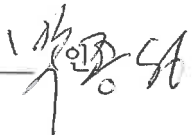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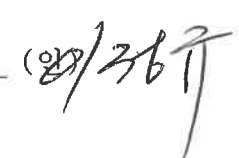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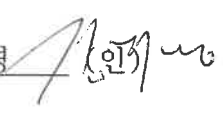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측에 전달하기로 하다.

- 1)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 2)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TF를 구성하여 안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 3)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의장은 오늘 불참한 교수의원 두 분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하고 12시 7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9학년도 제 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박종성</u> 	부의장 <u>이정규</u> 
의 원 <u>김영선</u> 	의 원 <u>김주영</u> 
의 원 <u>김화경</u> 	의 원 <u>박소진</u> 
의 원 <u>황지수</u> 	